

# 企業의 危險管理 必要性

曹 秉 甲  
 〈本協會 保險 1 部 · 代理〉

## 目 次

1. 序 言
2. 危險管理의 定義와 危險類型
3. 危險管理의 必要性和 그 技法의 概說
4. 結 言

## 1. 序 言

1970年代를 전후하여 한국의 기업은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규모면에 있어서는 歐美의 先進國家를 능가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단위의 工團施設이나 종합화학, 섬유 및 중공업등의 시설분야는 가히 세계적 규모라 할만 하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 이러한 危險들이 內在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들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정도는 지극히 낮은 것 같다. 물론 가스, 화재, 전기 또는 안전등의 문제가 法的 要請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긴 하나 綜合的인 Total Risk Management의 概念으로는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태이다.

'70年代의 기업이 量的 膨脹에 주력하여 왔고 그러한 經營政策에도 불구하고 國內的 제한 여건에 힘입어 高

度成長이 가능하였으나 '80년대의 다양성과 高價性 및 危險의 增加는 기업이 위험에 대한 종합적 인식과 대책을 필요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認識이 없이는 기업의 安定的 發展이 어렵고 어떠한 경우에는 企業의 存續에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可觀的, 돌절적인 위험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각종의 위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이해와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과거 수년간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무관심 함으로써 발생했던 대손실과 재난을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대기업은 제외하고는 아직도 위험에 대한 認識度는 지극히 낮은 실태이며 한국산업 위험관리 연구소가 설문서를 배포, 위험관리실태와 경영자의 위험관리 인식도를 측정하여 보았으나 그 결과는 지극히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위험관리라고 하는 용어 그 자체마저도 매우 생소한 느낌을 표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위험관리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미 100년여 전에 체계적 활동을 시작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現代經營에 필수적 경영기법의 일부를 아직껏 개념마저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기업이 왜 위험관리를 필요로 하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 2. 危險管理의 定義와 危險類型

危險管理에 대해서 수차 본지에 소개된바 있으므로

두사람의 대조적 견해만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Rosen Bloom;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적인 이익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純粹危險(Pure Risk)의 모든 실패에 대한 경영상의 措置機能”

Banister & Bawcutt; “企業의 收益과 資産을 위협하는 危險을 확인하고 測定하여經濟적으로 통제하는 일”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學者의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소극적 개념으로는 損失의 極少化이고 적극적 개념으로는 이익의 極大化에 대한 기여 방법이다. 그런데 Rosen Bloom은 순수 위험의 관리로 限定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위험에 대한 설명을 부연코자 한다. 위험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靜的(Static) 危險과 動的(Dynamic) 危險 또는 純粹危險(Pure)과 非純粹危險(Speculative)으로 分類하고 있으며 Static과 Pure가 Dynamic과 Speculative가 각각 거의 同一概念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런데 순수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發生하였을 때 반드시 손실만을 초래하는 위험으로서 예를 들면 화재, 상해, 풍수재 또는 기계적 사고 등과 같은 위험으로서 그에 대한 최후의 보호조치가 保險으로 가능한 위험들을 말한다. 그러나 비순수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때로는 이익을, 때로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중적 영향이나 결과를 초래케 하는 위험으로서 정치적위험, 사회적위험, 경제적위험, 경영적 위험 및 기술변화상의 위험등만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또는 국제정치상의 변화나 새로운 立法, 社會流行의 변화, Inflation, Technical Innovation 및 경영정책 등은 때로는 이익을, 때로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二重의 特性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순수위험은 인위적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때로는 자의적이며, 保險으로 최종적 對處를 기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짐으로서 Rosen Bloom은 위험 관리활동의 영역을 순수위험에만 국한 시키는 정의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은 Rosen Bloom의 정의를 일면 시인 하면서도 Risk Management는 局部的의 管理概念이 아니라 綜合的의 管理概念으로 把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초기단계에서는 순수위험만을 다룬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비순수위험까지를 포함하는 Total Risk Management의 방향으로 발전되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순수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적 이거나 극대화 된다하더라도 발생확률이 지극히 적음에 반하여 비순수위험은 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험 전가의 기법으로 保險活用도 불가능한 바 기업은 安定的인 안목에서 그에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해 갈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 기업의 위험을 순수위험과 비순수 위험으로 구분하여 그 特性 및 위험관리의 정의를 살펴 보았다.

필자는 본지 17號(1982. 1)에 Sweden의 Hamilton씨가 분류한 순수위험 Diagram을 소개한바 있으나 이를 광역의 위험 관리분류개념으로 변형시켜 보면 (그림 1)의 Diagram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이미 KRMI가 동양식의 다이어그램을 기업에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표상에서 우측의 화살표방향은 순수 위험을, 좌측의 화살표방향은 비순수위험을 열거하였으며 6시방향의 商事保險이 保險損失危險으로 변형된 것은 國內의 기업이 보험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형추가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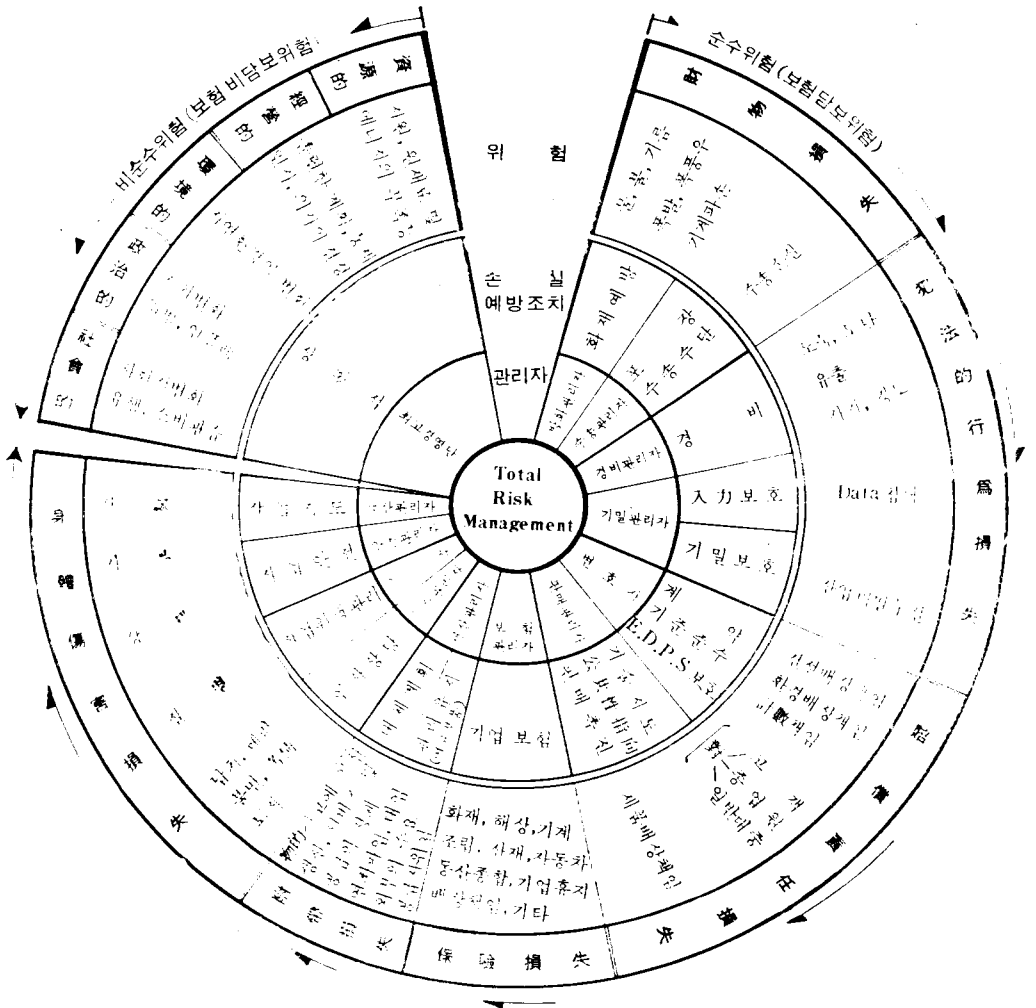
일반적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이도 독자 여러분의 이해가 용이하리라 사료 되어 특수한 다음 위험들에 대해서만 요약설명 함으로써 미처 생각치 못한 위험들의 중요성을 시사코자 한다.

### 가. 산업비밀의 누설

모든 기업은 자량의 기밀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특히 중요한 한 예를 들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거나 또는 개발이 완료되어 곧 사용코자 하는 Know How와 같은 기밀은 기업의 死活을 좌우할 때가 있다. 더우기 현대기업이 새로운 Know How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人力과 物的資源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Know How의 기밀이 누설된다면 기업은 치명적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소위 오늘날 상대방 기업의 기밀탐지를 위한 산업정보전쟁의 활발함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기밀의 유출로 인하여 치명적 타격을 받은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한 것들이 많다.

### 나. EDPS의 保護

아직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컴퓨터의 이용량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활용하게



(그림 1) 危險의 類型과 管理圖

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컴퓨터에 의한 결과는 그 인인을 규명하기는 어렵고 다만 결과가 신속 정확히 추출된다는 실용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컴퓨터의 入力를 조작하게 된다면 비교적 쉬운 손실을 기업에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막대한 양의 현금을 유출시킨 사례를 보아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은행의 On-line제도를 악용하여 가끔 현금유출 사고가 보도되고 있음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방법

에 의한 유출은 즉각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장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거나 또는 발견이 안된다는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 다. 부대손실

工場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요이익을 산출하는 기계가 손상되었을 때를 가정 한다면 그러한 설비나 기계를 복구하는데는 상당한 기일을 소요하게 될 것이므로 동기간중에 생산은 중단되고, 재고 상품이 없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설비나 그 기계자재의 손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

- 생산중단에 의한 고정비의 손실
- 공급부진이나 중단에 의한 매출액의 감소
- 시장점유율의 감소(고객의 거래선 변경)
- 일반대중 및 고객의 기업 image 惡化

이상과 같은 손해들은 보험으로 결코 다 담보될 수 없으며,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실의 비중이 보상되는 손실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라. 제품의 배상책임

오늘날 TQC의 活動이 지극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은 다 아는 바이나 아직도 국내기업들의 상품을 구입해 보면 완전성의 결여가 종종 나타난다. 우리는 과거에 제품이 좀 불량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경향이 짙었으나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활동이 강화되어 기업은 QC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소비자보호활동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화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신상품의 결이나 안전등을 실험분석하여 보고되는 내용의 良否는 곧 그 제품의 사활을 결정하기에 까지 이르며 이러한 사례는 선진국가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금의 추세로 보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배상책임의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이 결실히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는 제품의 판매계약에 위험관리기법을 환용함으로써 "Hold Harmless Contract" 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부기업들이 외국과의 합작계약에서 그러한 위험관리기법의 미숙으로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불이익에 놓이게 된 사례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자는 대기업 몇개쯤은 들어서 알고 있는 바이다.

## 마. 환경적 위험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상품의 수요를 촉진 시키거나 기존상품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위적 환경의 변화의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연환경의 변화는 기후나 천재지변등에 의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고 인위적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도시의 형성이나 生活利器의 변화에 의한 위험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위험은 오늘날 인구집중의 도시화나 급격한 利器의 변화 또는 자연계의 이상현상으로 더욱 그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 바. 정치적 위험

집권정당이 바뀌면 국가의 경제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새로운 立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한 예를 들면 특정제품의 수입 중단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의 경우에 그러한 상품을 수입하던 기업은 일시에 치명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수입의 자유가 확대됨으로써 그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는 지극히 비근한 예이나 정치상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을 기업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경험했으리라 믿는다.

## 3. 危險管理의 必要성과 그 技法의 概說

危險管理라는 用語가 發生하기 이전에도 人間은 작게는 자기자신과 크게는 조직의 安定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위험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도 이러한 용어와는 관계 없이 위험관리가 실시되고 있음은 사실인바 이는 곧 이러한 관리 없이는 개인과 조직의 존속 그 자체에 위험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위험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서 이해되지 않고 단편적 상황으로 인식, 취급됨으로써 기업은 그러한 위험들에 종합적, 장기적, 조직적인 소위 경영전략적 대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위험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위험이라는 통일된 개념을 의식하지 못함으로써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현실한 기업들을 도산케한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 예를 들면 D기계공업, D중기공업들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기업들은 비교적 건실한 재무구조와 시장성이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 왔으나 정치적 위험에 대한 이해가 크게 결여

되어 결국은 거대한 규모의 양적팽창을 이룩하였으면 서도 그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수년간 H기업은 수송중의 제품이 폭발함으로써 한 도시를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했는데 당시의 제반 위험관리는 지극히 불충분한 상태였음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위험들은 비단 H기업만의 위험이 아니고 H프라스 틱, D제강, H화학, 기타 공단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위험들을 안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대 개가 안이한 상태임을 필자는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물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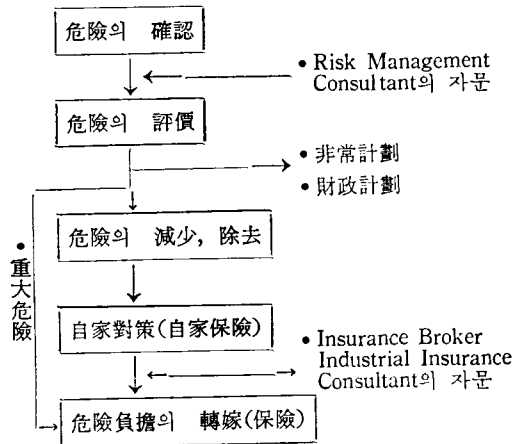
한 예로 H프라스틱의 VCM탱크가 폭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름답고 조용한 한 항구도시가 일순에 수 라장으로 변해버릴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이베리의 세베소화학공장에서 실제 체험하였는바 당시의 유독성가스의 유출은 수십만 에이커의 땅을 불 모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장의 폐쇄, 주민의 소개,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 모든 동식물의 전멸을 초래 하였고 오늘날 까지도 금단의 지역으로 출입이 불가능 하다. 물론 이러한 예가 극단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기 업들은 이러한 카타스트라피한 위험에 대해서 지극히 둔감하거나 운명에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을 불식키 어 려운 실정이다.

이상 큰 위험들만을 몇가지 예로 들었으나 작은 위 험들도 철저히 사전 예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험 들이 재난을 초래하였을 때 그에 대한 진재조치 및 사 후의 문제등에 대해서도 계획적 사려가 있어야 할 것이 다. 필자는 損害査定業務를 수년간 다루어 오면서 실 제로 그러한 위험들에 임기응변적인 조치밖에 취할 수 없었던 사례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고 그로인한 손 실은 직접적 손실보다 간접적 손실이 더욱 크다는 사 실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재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관계자들은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연 예기치 못했다는 것이다. P급속의 경우 용광로에 화재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연 상상할 수 없었으나 OCB의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 였고, K통신의 화재는 신나통에 담배공초를 던져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D조선의 화재는 가스 배관의 수 리부주의 및 FRP벽에 도치램프로 절단을 시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지극히 상식의 범주를 넘 이신 부주의가 원인이었으나 관리자는 전연 예기치도

못했던 사고였다. 또한 H프라스틱의 Extruder는 Screw 가 수차 파손되는 경험을 하였으면서도 Screw의 여유 분이 없어 몇개월씩 기계를 가동치 못하여 공급에 차 질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는바,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로 보아 위험에 대한 관리의 인식이 얼 마나 낮은가를 절감하게 된다. 특히 K통신은 프라스 틱제품이 인화되어 연소되는 데도 그 때 발생하는 염 소가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모한 진화를 시도하여 몇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위험의 관리절차에 대한 체계적계획, 계몽 교육이 얼마나 부족하였는가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사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마저 현장에 뛰어들어가다 질식되는 참상을 빚었 음은 크게 생각해볼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몇가지의 위험의 종류와 그로 인한 영향을 고 찰해 보았으며 이러한 위험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야 하는가를 <그림 2>를 참고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2> 危險管理節次圖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이 재난을 초래하였을 때 직접적인 손실의 크기와 간접적 손실의 크기 즉, 위험의 深度를 測定하고, 그러한 위험은 얼마나 자주 발생 하는가의 소위 발생빈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빈도는 작다하더라도 위험의 손실이 클 때에는 곧 保險으로 위험을 전가시킬 것이며, 이 때 위험의 크기 나 빈도에 관계 없이 모든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 이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의 감소나 제거조치를 최 대한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위험이 현실적

으로 재난을 초래하였을 때 진재의 대책과 진재 이후의 복구나 대응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급한바와 같이 보험대책을 강구하는 일련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경영유지를 하여야 한다. 즉 예를 들면 공급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할 경우에 화재나 주요기계의 파손등에 의하여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가정할 수 있고 이 때에 기업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착안하여 비상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 1) 여유시설을 확보할 것인가?
- 2) 비상대처물량을 어느정도까지 확보할 것인가?
- 3) 동종의 타기업과 상호보완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에 대비할 것인가?
- 4) 납기가 일시에 지정되어 있다면 그 확보된 기존 물량을 어떻게 유지 보관할 것인가?
- 5) 어떠한 방법으로 조속히 손상된 설비를 복구할 것인가?
- 6) 수요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업의 이미지손상을 방지할 것인가?
- 7) 복구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험카바는 어떻게 조달하고 선택할 것인가?

등의 비상계획과 함께 위험대처에 필요한 財政計劃을 수립하여 적의한 경제적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심도가 낮은 위험에 대해서는 자가보험 형태를 취하되 잉여분을 계속 적립함으로써 소위 충분한 량의 기금이 되도록 하여 기업안정도를 제고 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체내에 유능한 Risk Manager나 Insurance Manager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험관리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의 기업들이 합리적인 위험관리를 시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험관리과정에서 보험은 맨 마지막 단계의 조치이며 이러한 보험은 기업가의 자의적 조치라기 보다는 상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또는 법적 요청에 의하여 불가피한 조치일 때가 많다. 따라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보험을 필요로 한다면 충분한 위험관리의 절차를 거쳐서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없이 곧 위험이 보험에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관리는 지극히 기형적이고 그 보험마저 관리가 대부분의 기업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음이 오늘

날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몇개의 大企業이 合理的인 위험관리를 시도하거나 실시하였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그마저 제반여건이 지극히 불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즉, 그 조직이 비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의 단편적 업무에 기능이 한정됨으로써 위험관리가 의미하는 보험관리가 어렵고, 위험관리 그 자체가 국내에서는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보험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위험관리적 배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는 국내 유일하게 담당부서를 설치한 K그룹과 H중공업의 조직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위험과 보험을 다루어 오면서 느낀바로는 과거 3~4년 사이에 보험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음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이 위험이나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없이 보험료만을 지불하고 있는 실태에 있음도 사실이다.

#### 4. 結 言

이상 두서없이 拙見을 피력하여 독자 제위께 송구스러운 바이나 국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결론적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 가. 경영자의 위험관리나 보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보다 새로워져야 하겠다

지금까지는 미처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기업의 모든 불확실성적인 문제들을 즉, 작게는 조그만 기계의 파손에서 부터 크게는 경영의사의 결정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위험개념의 인식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다룰 수 없는 경영기법으로서 위험관리가 정립되고 활용되어야 하겠다.

#### 나. 기업은 보다 전문적인 위험 또는 보험관리자의 채용이나 전담부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이나 보험의 관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총무, 경리 또는 안전기획실 등의 일부업무로 취급케 함으로써 일반직종의 담당자가 그 자질과 소양적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로 해서 대단히 중요한 경영의 일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물론 담당부서를 신설한 기업이 없지 않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담당자들이 업무개발에 한계를 느껴 해산되는 실정까지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인을 배출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이 분야가 美國이나 구주 지역에서는 이미 장족의 발전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특히 美國의 경우는 100년 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학위와 Risk Manager의 자격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의 기업이 경영기법 도입에 있어 외형적 성장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낙후된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이 분야의 연례적 국제회의가 국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고 구주지역은 지역연례회의까지 마련되어 있는데도 우리의 기업이나 보험업계 또는 학계는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지금까지 일관해 온 것 같다.

**라.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발족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국화재보험협회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등의 전문기관이 없는바 아니나 위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연구소로서 한국산업위험관리연구소가 종합적 위험관리 체제를 시도하여 교육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종합적 관리기능을 가진 연구소나 기업형태의 기관이 대단히 많으며, 해외재보험자들이 한국의 거대물건을 인수할 때에도 그러한 재보사와 관련된 기관의 Risk Management Consultant가 직접 위험도 조사를 한국에 까지 와서 실시하고 있고, 필자도 직접 영국의 C.T. Bowring Risk Management Consultants 등과 함께 위험도조사에 참여한바 있으며, 영국의 J.E. Bannister나 P.A. Bawcutt씨 등은 40여개 국가의 중요산업을 조사분석한바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위험관리의 분야가 국제적으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위험의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하루 속히 유능한 Risk Manager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관의 활동이 요청된다. \*



**「끝없이 사랑해야지」**

**鄭 基 澤**

〈本協會 點檢部〉

꽃향기 좋아도  
사람 몸내음만 못하고  
姿態 고와도  
사람 어여쁨만 못해

蘭이 孤高해도  
사람만 못하고  
내음 奧妙해도  
사람만 못해

촛불이 아무리 밝아도  
사람 눈빛보단 못하고  
햇벌이 제아무리 따사해도  
사람 맘보단 덜하리

이렇듯 사람은  
귀하고 보배로운데  
이렇듯 사람은  
영예롭고 고귀한데——  
모두 한마음 이어라  
모두 하나 되어라  
이제  
달과 별을 사랑하던, 맘으로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늘과 바다를 좋아하던 맘으로  
사람을 좋아 해야지  
모두 모두 좋아해야지  
끝없이 사랑해야지